

■ KIA 서정환 감독 프로야구 개막 출사표

“마운드 안정세 4강 진출 가능”

“올해 성적 잘 내서 광주시민들에게 한 영받는 감독이 돼 보겠습니다”

KIA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이 5일 광주무등경기장 감독실에서 “팀이 꼴찌를 한 뒤 식당에 가면 성적 좀 내라는 팬들의 따가운 질책을 들었는데 올 시즌 성적 잘 내서 식당에서 편하게 식사하겠다”는 자신감으로 올 시즌 출사표를 대신했다.

서 감독은 “지난해 선발은 물론 중간과 마무리 등 투수진 전체의 붕괴가 꼴찌의 원인이 됐다”며 “하지만 올해는 미국 전지훈련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이 많이 보완됐고 연습경기와 시범경기에서도 마운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4강 진출에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서 감독은 특히 “중간계투인 정원과 조태수, 이상화를 비롯해 마무리 윤석민, 전

병두, 장문석의 기량이 눈의 띄게 좋아졌다”며 “다만 왼손투수의 부족이 문제인데 인대수술을 받은 좌완 박정태의 회복 속도가 빨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서 감독은 또 올 시즌 팀내 기대주로 김진우를 꼽았다.

서 감독은 “신인 시절 이후로 매년 부진한 김진우가 살아나야 KIA의 ‘명가재건’도 가능하다”며 “본인도 많이 성숙해 있고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강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IA는 이날 올 시즌 각 포지션별 주전 엔트리를 발표했다. 선발투수는 김진우-그레이-한기주-강철민 등이 4선발로 최종 확정됐고 5선발은 이동현으로 잠정 결정됐다. 중간계투는 지난 2일 막을 내린 시범경



기에서 호투를 선보인 정원과 조태수, 이상화를, 마무리는 윤석민-전병두-장문석이 맡게 된다.

포수는 김상훈, 1루수 장성호, 2루수 손지환, 3루수 서브네, 유격수 홍세안, 중견수 이종범, 좌익수 김경언, 우익수 이용규 등으로 확정됐다. 또 심재학과 신동주 등은 상대 선발 투수에 따라 적절한 포지션에 배치할 계획이다.

타수는 1번 이종범, 2번 장성호, 3번 홍세안, 4번 서브네, 5번 이재주, 6번 손지환, 7번 김경언(심재학, 신동주), 8번 김상훈, 9번 이용규 순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경주 벙커샷

최경주가 5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 2006마스터스 골프 연습라운드 2번홀 그린 주변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우즈, 아버지 병환 때문에...



전립선암 악화...심리적 부담 커

대회 5번째 우승 어려울 수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다섯 번째 그린재킷과 메이저대회 11번째 우승 길목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일까.

‘꿈의 제전’ 마스터스골프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5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에서 가진 연습라운드에서 우즈의 붉은 벙커와 러프를 전전했다.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이 전장 7천445야드짜리 장거리 코스로 재탄생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아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즈의 머리 속이 너무나 복잡한 탓이다.

우즈에게는 단순한 아버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얼 우즈(74)의 병세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즈는 너무나 심란한

다.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인 얼 우즈는 최근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우즈는 “이제 아버지와 영영 헤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마스터스를 앞두고도 ‘우즈의 성적은 아버지의 병세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될 지도 모른다는 관측이다.

더구나 지난 97년 마스터스에서 우즈가 생애 첫 메이저 우승컵을 거머쥘 때 심장수술을 받고도 경기장에 나와 퍼팅코치까지 불사했던 아버지가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은 우즈의 경기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다. 당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왔던 얼 우즈는 절대 안정을 취하려는 의사의 권고마저 뿌리치고 나흘 내내 경기장에서 아들의 첫 메이저 제패를 지켜봤다.

이런 아버지의 죽음을 앞둔 우즈가 평정심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아버지에게 마지막 우승컵을 바치겠다는 우즈의 의욕 넘치는 플레이를 기대하는 팬들도 있다.

한편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4일 1라운드 조편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작년 우승자 우즈는 관례에 따라 지난해 US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챔피언 에도아르도 몰리나리아(이탈리아)와 함께 6일 밤 11시23분 티오프한다. 로버트 앨런비(호주)가 우즈, 몰리나리아와 동반한다.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7일 오전 1시 57분 스투어트 싱크(미국), 토마스 비온(덴마크) 등과 경기에 나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 출전 SK텔레콤 오픈 내달 4일 영종도 ‘스카이72’서

‘1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출전하는 2006 SK텔레콤오픈골프대

회 장소가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파72·7천111야드)로 최종 결정됐다.

대회조직위원회는 5월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 기간이 어린이날을 포함한 사흘간의 황금 연휴를 끼고 있어 교통 혼잡을 피하고 넓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스

카이72골프장을 대회장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회 창설 10주년을 맞는 이번 대회에는 무엇보다도 위성미가 초청돼 남자선수들과 상대결을 벌이게 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송진우 사상 첫 200승 눈앞

■ 미리 보는 2006 프로야구

- ① 8개 구단별 전력 분석
- ② 떠오르는 선수는 누구
- ③ 예상되는 각종 기록들
- ④ 야구가 놀자...시즌 개막

올해로 출범 25년째를 맞는 한국 프로 야구.

25년 세월만큼 올 시즌에는 각종 진기록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준혁 개인통산 2천 안타도

프로 18년차 투수 송진우(40·한화)는 7승만 보태면 200승 고지에 오르고 14년차 강타자 양준혁(37·삼성)은 2천안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같은 각종 기록들의 달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가며 프로야구를 즐긴다면 그 기쁨도 배가 될 것이다.

▲투수 개인통산 기록 투수가 통산 200승을 하려면 10년동안 매년 20승을 거둬야 한다. 선발 투수가 한 시즌 10승 이상만 거둔다면 자신의 임무를 100% 달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통산 200승을 이룬다는 것은 기적이다.

100년 역사의 미국 프로야구도 200승 이상은 100명에 불과하고 일본도 23명 밖에 없다. 이같은 기록에 ‘회장님’ 송진우가 도전한다. 지난 시즌까지 통산 193승을 올린 송진우는 올 시즌 7승만 보태면 국내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200승 고지에 오르게 된다.

▲타자 개인통산 기록 투수부문에 송진우가 있다면 타자에는 14년차 양준혁이 있다. 사상 첫 개인통산 2천 안타(-179), 400

2루타(-45), 3천200 루타(-92), 1천100 득점(-52), 1천200 타점(-81), 1천100 사구(-81), 1천 볼넷(-53) 등 각종 기록이 양준혁의 방방이를 기다리고 있다.

KIA, 1만7천 탈삼진 기대

지난해까지 501 도루를 기록한 현대 전준호는 49개만 보태면 550 도루에 성공한다. 미국에서도 개인통산 도루를 550개 이상 한 선수는 22명뿐이다.

▲구단기록 KIA는 1만7천 탈삼진(-385), 3천100 도루(-92) 등 전인미답의 고지에 오르게 된다. 삼성은 사상 첫 투수 1천 600승(-11), 800 세이브(-68), 3천 홈런(-33) 등을 바라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07학년도 수능생 전원 합격률 목표 하는 강당! **위재권 초·중·고·대학과정**

신배한역성이 입증하는 출제 경향에 가장 정밀한 교원임용강좌!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각내영교육학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경파 강의 특색이 살아있는 **교육학개강 5월 6일**

전공 국어	전공 영어	전공 수학	전공 일반사회	전공 공민교육	전공 생활	전공 물리	전공 미술	전공 체육	전공 임의선택
최병해	송숙	임대성	김형수	정영민	김치욱	정영민	김성희	김용호	조남경

교원임용고시의 **최정답!** **각내영고시학원** 수선생: 062-529-0090 http://www.naeyoung.com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ie.net

생생한 화면강의를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 수강가능!

전국 최고의 유명강사진 송영민

교육학	유아교육	미술
특수교육	영어	김성희
국어	영어	수학
최병해	송숙	임대성
체육	공민교육	일반사회
김용호	정영민	김형수

현재 성황리 강의중 문의: (02)816-1646

노동부직업역량개발 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수준의 강사진과 알찬 교육내용, 교육시설로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개교 하였습니다. 인재육성의 명문교육기관으로서 사랑을 받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강 4월 5일

자격증대비반 (유료과정)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필·실기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실기
문서작성/엑셀/피워포인트/인터넷

수시개강 자격증반(매월 일,15일)

컴퓨터활용능력(1,2,3급),워드프세서(1,2급)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운용기사
컴퓨터그래픽스(CG)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인터넷정보검색사

직 장 인 (무료과정)

정보화기초-1(한글 100%)
원도우/인터넷/문서편집활용 교육시간 PM 7:00 ~ 9:30 화,목 (선납금 90,000원)
정보화기초-2(한글 100%)
엑셀/피워포인트/컴퓨터활용 교육시간 PM 7:00 ~ 9:30 수,금 (선납금 120,000원)
무자격취득반(한글 80%)
문서편집/엑셀/피워/컴퓨터활용 교육일정, 시간 (상당후 결정)

참고사항

- 고용노동부의 지정인(선학수15명)
- 일인일 제비로 수강가능
- 교재무료제공

도청(이문은) :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385, 555, 777
전남고 : 3, 11, 27, 38, 55, 111, 118
에듀비전 : 2, 6, 11, 25, 28, 30, 118, 222, 518, 666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현대고시학원내 3층)
☎ 224-4560, 225-7200

hanbitgosi.co.kr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대비 =

공무원 첫진도·교정직특채

개강: 5월 1일 전문숙원! 전문강사진의 명쾌한 강의만이 당신의 합격을 앞당깁니다.

한빛공무원학원

광주 동부경찰서위 전남여고 건너편 ☎ 234-0234

개강: 4월 10일 첫진도반 개강

2006년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특별채용 1,000명!!

= 20세~40세 (직장인 공무원 되기위한 절호의 기회) =

특채 시험과목: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경찰직 준비생 절호의 기회!(2과목만 하면된다.)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위 222-4560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전국 특·별·출·신 수석 승 은 영 남 96.7

4월 1일 첫진도 시작반

합격률 1위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384명 중 본원출신 307명 합격!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623명 중 본원출신 498명 합격!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 227-8003

도청 및 전남고청 위 / 지학 및 도청 위